**기획서**

**31003 김다빈 31008 박종호**

**1. 조건 : 각 층에서 힌트를 모아 탈출의 필요한 물품들을 얻고 탑을 탈출하는 것**

**1-5. 인게임 대사**

**- 시작**

**“으윽.. 여긴 어디지…?”**

**잠에서 깨어난 정혜민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고 낯선 천장을 보게 되었다.**

**“분명 난 친구랑 놀고 집에가는 길이었는데..”**

**그녀가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어떠한 방에 누워있다는 것과 자신의 소지품이 모두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.**

**그녀는 뇌를 각성하고 방을 더 자세히 보았을 때 어느 벽에 글이 써있는 것을 발견했다.**

**“당신은 이 탑에서 탈출을 위한 열쇠를 모으고 4층의 탑을 탈출하십시오..?”**

**그녀는 한동안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벙쪄 있었고 이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벽에 써있는 글자 위 5층이라고 적힌 글자를 발견한다.**

**대체 무슨일이 일어나는 건지 머리가 따라가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이 벽의 글이 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방 가운데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.**

**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**

**게임 시작**

**- 4층 :**

**2. 탑 구조 및 물건 힌트**

**1) 탑 구조 : 4개의 층에 각기 다른 배경**

**- 4층 : 숲**

**- 3층 : 눈 덮인 산**

**- 2층 : 교실**

**- 1층 : 주인공의 방**

**2) 물건 :**

**- 4층 : 썩은 참나무, 빛나는 돌, 넝쿨에 둘러싸인 상자**

**- 3층 : 운반용 썰매, 등산가 시체, 얼어붙은 호수**

**- 2층 : 가방, 서랍, 책상/의자, 시계**

**- 1층 : 컴퓨터, 침대, 옷장**

**3. 힌트**

**1) 4층**

**① 빛나는 돌 :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빛나는 돌을 살펴봤을 때 빛나는 돌에 버튼을 찾았다!!**

**- 버튼 : 누른다, 무시한다**

**-누른다 :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끼를 얻을 수 있다.**

**- 무시한다 : “이런 버튼은 누르면 큰일날거야”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.**

**- 지나간다 : “생긴 것도 수상한데 그냥 지나가자”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**

**② 썩은 참나무 :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“썩은 나무 틈에서 반짝이는게 보인다, 틈은 좁아서 손을 넣을 순 없을 것 같다.”**

**- 도끼가 있을 경우 : “틈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을 것 같다.” | 부수기, 냅두기**

**- 부수기 : 썩은 나무를 부수니 열쇠가 나왔다.**

**- 냅두기 : “도끼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아끼자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.**

**- 지나간다 : “괜히 냄새만 나고 찝찝해… 그냥 지나가자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.**

**③ 덩쿨에 둘러싸인 상자 :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“여기에 왜 이렇게 큰 상자가 있지..? 그건 그렇고 덩쿨이 너무 많아 손으론 치우기 힘들 것 같다.”**

**- 도끼가 있을 경우 : “덩쿨을 자를 수 있을 것 같다” | 자르기, 냅두기**

**- 자르기 : 덩쿨을 자르니 열쇠 구멍이 있는 커다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**

**- 냅두기 : “덩쿨이 너무 무성해… 괜히 내 힘만 빼는 거 아니야…?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.**

**- 열쇠가 있을 경우 : “왠지 이 열쇠로 상자를 열 수 있을 것 같다..” | 열어보기, 무시하기**

**- 열어보기 : “어? 왜이렇게 상자가 크다 했더니...” 상자를 열어보니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**

**- 무시하기 : “이 열쇠가 아닌가 보네…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- 무시하기 : “혹시 미믹인거 아니야...? 난 더 살고 싶어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- 지나간다 : “갑자기 왠 상자.. 불길해.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**

**혜민은 울창한 느낌을 주는 숲과 비교되는 음침한 느낌을 주는 계단을 내려갔다**

**마치 디즈니의 겨울을 연상케 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방공호의 것으로 연상되는 문을 발견했다**

**“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...”**

**여기에 왜 이런것이 있는지 의문이었으나 이내 망설임을 지우고 문을 열고 나갔다**

**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**

**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 본 광경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**

**그것은 마치 북극에 가본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눈으로 덮인 산이었다**

**“여기.. 탑이라고 하지 않았나..? 숲도 그렇고 여긴 대체 어떻게 되먹은거야..”**

**그녀는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**

**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**

**2) 3층**

**① 운반용 썰매 :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썰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. |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가방안엔 얼음 망치가 있다.. 어디에 쓰지..?**

**- 지나간다 : “아무것도 없어 보인다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- 지나간다 : “내것도 아닌데 구지 건들지 말자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② 등산가의 시체 :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살펴본다 : “우웁.. 무슨 냄새가..” 시체 썩은내가 나는 시체의 주머니에서 종이를 발견했다**

**- 편지를 발견했다 | 내용을 본다, 종이를 버린다**

**- 내용을 본다 : 계단 위치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!! “이제 다음층으로 갈 수 있겠어!!”**

**- 종이를 버린다 : “피 묻어서 잘 보이지도 않네.. 그냥 버리자.” 힌트를 얻지 못했다**

**- 지나간다 : “우웁.. 저건 도저히 못보겠어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③ 얼어붙은 호수 :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커다란 호수를 둘러봤지만 특이한걸 찾을 순 없었다**

**- 힌트만 있을 경우 : “여기가 탈출구 인가보다!!” 탈출구의 위치를 찾았다**

**- 망치만 있을 경우 : “어디다가 쓰는 망치지..? 얼음을 깨뜨리는 건 맞는거 같은데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- 힌트와 망치가 있을 경우 : “아! 여기를 깨는 거구나!!” 탈출구로 탈출하였다**

**- 힌트가 없을 경우 : ‘얼음 호수 - 지나간다’와 같은 결과**

**- 지나간다 : “여긴 너무 넓다.. 그냥 돌아가자.”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**

**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**

**호수 근처에서 계단을 발견한 혜민은 바닥을 여는 형태의(다락문 같은) 문을 발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**

**“아까 내려온 계단이랑은 다르네...”**

**이번 계단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 같은 회색빛의 계단이었다**

**“이번엔 어떤 곳일까...”**

**그녀는 도대체 왜 여기에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**

**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**

**아까의 층과 마찬가지로 잠수함의 문같이 생긴 문을 열고 나가니 대학교의 교실처럼 보이는 방에 도착했다.**

**“여긴... 교실이네...”**

**그녀는 교실의 앞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발견하였고, 문에는 ‘EXIT’ 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.**

**“이번에는 여기가 계단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 같네..”**

**“왠지 학생 때로 돌아온 느낌이야..”**

**이내 그녀는 잡생각을 떨치고 반을 둘러보기 시작했다.**

**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**

**3) 2층 - 가방, 서랍, 책상/의자, 시계**

**① 시계 | 살펴본다, 지나간다**

**- 살펴본다 : “뭐지..? 분명 밖은 밝은데 시간은 저녁을 가리키고 있네?” 시계를 만져보니 뒤편에 비밀번호 입력하는 금고를 발견했다**

**- 비밀번호 해제 : “어..? 이건 어디에 쓰는 열쇠지...?” 열쇠를 획득했다**

**- 지나간다 : “그냥 시곈가 보다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② 서랍 | 살펴본다, 무시한다**

**- 살펴본다 : “열쇠로 여는 잠열쇠로 잠긴 사물함이다.. 어딘가엔 열쇠가 있겠지..?”**

**- 열쇠가 있을 경우 : “이 열쇠로 열면 되는건가..?”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1을 얻었다**

**- 열쇠가 없을 경우 : 서랍 - 무시한다와 같은 결과 출력**

**- 무시한다 : “잠열쇠가 너무 낡았네.. 괜히 만졌다가 베일 것 같아..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**

**③ 책상/의자 | 책상을 살펴본다/무시한다, 의자를 살펴본다/무시한다**

**-**